

통일유감(統一有感), 건축유감(建築有感)...

민족상잔의 달인 6월이 금년에는 희망과 흥분 그리고 축제의 달로 변했다. 국토가 남북으로 갈린지 55년, 적대적 관계에서 남북정상 첫만남은 민족을 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6월 13일부터 사흘간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반복되는 TV의 화면을 보고 또 보았다. 마스크들은 평양의 회담 소식과 함께 향후 전개될 남북관계에 대한 국내외 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연일 지면을 메우고 화면을 달구었다. 그런가하면 직장이건 식당이건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삼삼오오 모여서 남북 정상의 만남을 축하하며 이야기 꽃을 피우다가 때로는 의견이 엇갈려 고성이나 오가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는 광경이 목도되곤 했다. 회담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북쪽을 얼마나 믿어야 하느냐, 미느냐가 쟁론의 초점이 되었다.

누구의 생각이 옳고 그르건 간에 남북정상의 만남은 공히 두 지도자의 결단에 의한 것이다. 향후 곁과야 역사가 말해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이 소멸하고 통일의 기운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이전이라도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김대통령이 순간 비행장에 내려 김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평양시내를 지나 백화원 초대소에 이르는 동안 온 국민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평양이 고향인 사람은 혹시 내가 살던 곳을 볼 수 있느냐 했을 것이고, 대북사업이 소원인 사업가는 북으로 진출할 날이 가까워 신이 났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김위원장의 공항영접에 예의가 바르다고 찬사를 보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오히려 복장이 비례(非禮)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열렬히 환영하는 평양시민을 보고 동쪽으로써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흐드는 붉은 꽃술에서 아름다움 보다 섬뜩하거나 생경함을 느끼기도 하였을 것이다. 또한 나이든 국민들은 이러한 희비(喜悲), 애증(愛憎)의 극한 감정이 순간 순간 교차하기도 하였으리라.

어찌되었든 이 날은 진정 역사에 기록될 날이며, 한 민족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한 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날 이 역사적 광경을 보면서 우리 건축사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떤이는 대북투자의 활성화로 인한 대북 설계용역에 생각하며 미소를 짓기도 했을 것이고, 협회 임원들 중에는 이러한 대북 설계용역에 걸림돌이 될 건축사 자격문제, 북쪽의 건축법 문제, 감리문제 등 제반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에 고민을 한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깨끗한 평양시내에 찬사를 보낸이도 있을 것이며 전통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은 시내 곳곳에 있는 전통을 살린 건축물에 주목했을 것이다. 이렇듯 각자의 전공과 직무에 따라 관점과 느낌이 달랐을 것이다.

필자는 일행이 보통문을 지날 때 그 보통문 주변의 건물들이 낮아 보통문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는 데 눈길이 갔다. 순간 빌딩 숲에 가려져 위용을 잃은 남대문이 떠 올랐다. 공산주의를 싫어하지만 보통문처럼 보존해야 할 건물을 돋보이게 정비하고 통제하는 일은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문은 고구려 시대의 성문으로 6세기 중엽에 이미 건립되었으며, 1473년에 다시 지은 2층 문루이다. 역사적으로도 남대문보다 훨씬 앞선 참으로 귀한 문화유산이다.

통일이 되고 평양이 재개발된다 하여도 보통문 주변만은 보통문이 당당하게 주인노릇하는 그런 환경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남쪽의 재벌들과 북부인들이 어찌 어찌하여 고층건물을 세움으로써 남대문의 재판이 될까 걱정하는 이 마음이 한 사람 건축가의 단순한 기우이길 바란다.

(장양순/본지 편찬위원장)